

미국 메릴랜드 주, 2022 기후 법안 제정

미국, 기후대기 관련 주요 이슈 (2022. 01 ~ 2022. 06) ※ 총 4,007건 키워드 분석 결과

미국 메릴랜드주, 2022 기후법안 제정

기후변화 대책 촉구

미국 15개주, 기후행동 관련 법안 제정

세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참여
촉구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사회복지 및 기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 상원에서 좌초된 가운데, 메릴랜드 주의회가 4월 8일 203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축한다는 내용의 '2022 기후 법안(Climate Solutions Now Act, SB 528)' 통과시킴
- 건물 에너지 기준 마련해 2040년까지 대형 건물 탄소중립 이루고, 2031까지 주 정부 승용차량의 탄소중립 달성, '과도한 부담을 진' 공동체와 '취약' 공동체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해 지원, V2G(vehicle-to-grid)기술 활용하는 전기 스쿨버스 프로그램 시범운영, 탈탄소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기 보급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함
- 법안을 발의한 폴 핑스키(Paul Pinsky)의원은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조항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보류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하나의 법안으로 광범위한 주장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도전해야 한다는 입장 밝힘¹⁾

1) 작년에 하나의 법안 포괄적인 법안으로 처리하려 하였지만 여러 개의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음

미국 메릴랜드 주, 기후 법안 제정 관련 주요 이슈

• 2022. 01. 20.

2022 기후 법안, 학교 건물과 스쿨버스 전기화에 초점

메릴랜드 주의회가 학교와 신축건물 전기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 법안 공개할 예정임. 주 상원은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지만 주 하원은 이를 여러 개의 법안으로 나누어 각 법안이 하나의 위원회에 배정되도록 해 처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획임. 법안을 발의한 폴 핑스키(Paul Pinsky)의원은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조항들 때문에 보류될 수 있지만 하나의 포괄적인 하나의 법안으로 광범위한 주장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도전해야 한다는 입장 밝힘

자료 : MARYLAND MATTERS (marylandmatters.org), 「2022 Climate Bills Will Focus on Electrification, Including School Buildings and Buses」, 2022-01-20

• 2022. 04. 11.

메릴랜드(Maryland) 주,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2031 온실가스출 감축 법안이 통과

4월 8일 메릴랜드 주 의회는 203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0% 감축하고 2024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의 '기후 법안(Climate Solutions Now Act, SB 528)' 승인함. 건물 에너지 기준 마련해 2040년까지 대형 건물 탄소중립 이루고, 2031까지 주 정부 승용차량의 탄소중립 달성, '과도한 부담을 안은' 공동체와 '취약' 공동체에 대한 포괄적 규정 마련해 지원, V2G(vehicle-to-grid)기술 활용하는 전기 스쿨버스 프로그램 시범운영, 탈탄소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기보급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함

자료 : NCEL (ncelenviro.org), 「Maryland Passes the Climate Solution Now Act」, 2022-04-14

• 2022. 06. 15.

2022년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려워진 가운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15개 주 정부의 노력이 성과 나타냄. 메릴랜드 주는 가장 강력한 탄소 저감법(SB 528) 도입, 코네티컷 주는 2040년 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환 추진(SB 10), 콜로라도 주는 '대기 독성 법(Air Toxic Rules, HB22-1244)'과 '청정에너지 지원기금법(HB12-1193)', 뉴 멕시코 주는 메탄 유출을 막기 위한 '신오존법(New Ozone Rule)'과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 자동차법(Clean Car Rule)'을 채택함. 이외 메인, 뉴저지, 뉴욕, 워싱턴, 미시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 정부들이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공함

자료 : The Hill (thehill.com), 「A Look at state effort to combat climate change in 2022, so far」, 2022-06-15

이슈 세부 정보

미국 메릴랜드 주, 2022 기후 법안 'Climate Solution Now, SB 528' 통과

미국 메릴랜드 주, 2022 기후 법안(SB 528) 주요 내용 일부

분류	내용
효력 발생일	2022년 7월 1일
목적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방식을 통해 주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주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변경 - 주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설정 - 특정 건물에 대한 특정 수준의 에너지 효율 및 배출 저감 기준 설정 - 전력 공급업체들의 연간 점진적 총에너지 절약을 증가시키도록 요구 - 주정부 차량과 지역 통학버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제로 기준 수립 - 개인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 마련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릴랜드 토양 프로그램에 일정 예산 확보 - 기후촉매 자본 기금(Climate Catalytic Capital Fund) 설립 - 특정 전력공급업체 선정해 연방기금 지원 -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매립업자 및 환경부에 일정한 조치 요구 - 매립으로 인한 메탄 배출 규제 - 기후 변화 위원회는 공정 전환 고용과 재교육 실무팀 등을 구성해 자문을 제공 받고 연구 수행 -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와 특정 건물에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기 통학버스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주 전력분배 시스템과 관련된 주 정책 목표 설정 - 온실가스 제로 학교 보조금 기금 설립

자료 : Maryland General Assembly(maryland.gov), 「Climate Solutions Now Act of 2022」, 2022-07-08
 Maryland General Assembly(maryland.gov), 「Senate Bill 528」, 2022-07-08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MARYLAND MATTERS (marylandmatters.org)
2. NCEL (ncelenviro.org)
3. The Hill (thehill.com)
4. Maryland General Assembly(maryland.gov)